

말뭉치에 기반한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 연구

—공기 경향성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Huang Yinxia

Abstract

Huang Yinxia. 2016. 9. 30. **Corpus-based contrastive study on Sino-Korean word in Korean and Chinese: focused on difference of lexical co-occurrence.** *Bilingual Research* 64, 327-351. This study indicates deficiencies of previous research on contrastive analysis of sino-Korean word in Korean and Chinese, and proposes a corpus-based method to contrast analysis of sino-Korean lexical co-occurrence, such as the semantic preference, the colligation, and the semantic prosody. Intuition and dictionaries played an important role, and actual language resource-corpus is not yet widely used in contrastive studies on Sino-Korean and Chinese. Accordingly, in chapter 3, we propose the utilization of corpus in the contrastive analysis of sino-Korean words and a contrastive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lexical co-occurrence. In chapter 4, to validate the efficacy of the methodology, a contras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lexical co-occurrence of sino-Korean pairs classified as same-form-same-meaning words (or 'true friends') such as “이후” and “以后”, “절대” and “绝对”, “돌연” and “突然”, which respectively shows differences in semantic preference, colligation, and semantic prosody. The proposed methodology is expected to become a useful reference for further research, for not only the contrastive analysis between sino-Korean and Chinese, but also between other languages in Chinese character cultures such as Japanese and Vietnamese. (Paichai University)

[Key words] contrastive analysis of sino-Korean word(한자어 대조분석), lexical co-occurrence(공기 경향성), colligation(연접 범주), semantic preference(의미적 선호), semantic prosody(의미적 운율), Korean-Chinese contrastive analysis(한중 대조분석), comparable corpus(비교말뭉치)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한자어의 대조분석 연구에서 말뭉치의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의하며, 말뭉치에 기반한 한자어의 공기 경향성(lexical co-occurrence), 즉 의미적 선호(semantic preference), 연접범주(colligation),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에 대한 관찰과 대조분석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유어나 외래어와는 어휘적 특징이 뚜렷하게 다른 만큼¹⁾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자어의 대조분석에 대한 관심은 선행 학습과 후행 학습이 관련이 있는 경우, 선행 학습 내용이 후행 학습에 전이(transfer)를 일으킨다는 전이 이론에서 출발한다. 즉 한, 중 두 언어에서 형태·의미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성, 또는 관련성을 가진 한자어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또는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학습에 전이를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한자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대조분석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언어간 부정적 전이-간섭(interference)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같은 점을 밝힘으로써 언어간 긍정적 전이-유용(facilitation)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교육에서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 연구의 중요성이 학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고, 그 연구 결과가 교육

1) 한자어는 한자문화권의 동형 어휘와 음운, 형태, 의미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유어와 구분되는 가장 큰 어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재영 외(2010)에서는 한국어 어휘는 어원에 따라 다른 어휘 특성을 보인다고 하며, 한자어는 새 말을 만들 때 고유어나 외래어보다 훨씬 자주 사용되고, 특히 문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의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자어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하다’가 붙어 많은 형용사 또는 동사를 파생하고, 어휘의 의미 구조상 주술(主述), 병렬(并列), 목술(目述), 한정(限定) 등의 구성이 많으며, 4자성이라는 독특한 하위 유형을 포함하는 등을 한자어만의 특징으로 기술하였다.

에 더러 활용되고 있다.(김진아, 2005, 오성애, 2008, 윤윤진, 2008, 김희경 2011, 김순길, 2014, 오성아, 2015)

지난 수십 년간 한중 대조분석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서 2009년까지의 한중 대조분석 연구를 한국과 중국 지역의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모두를 대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한중 어휘 대조분석 연구가 192편으로 전체 연구의 50% 이상(전체 370편)을 차지하며, 어휘 대조분석에서는 한자어에 관한 연구가 43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은하, 2009). 그 이후로 정확히 집계된 바가 없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한중 대조분석 연구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도 대폭 증가하였다. 2016년 4월까지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 논문은 학술지 논문 총 72편, 학위 논문 100편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대에만 발표된 관련 연구가 그 이전 수십년간의 연구 총량의 3배에 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다. 다만, 한중 한자어 대조분석에서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방법론의 적용 사례는 단일어의 어휘 연구와 일반 어휘 대조분석 연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장에서 말뭉치에 기반한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3장에서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에서의 말뭉치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어휘 연구에서 말뭉치에 기반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하는 원론적인 논의에서 출발하여 한중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말뭉치의 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말뭉치에 기반한 어휘 연구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어휘의 공기 경향성에 대한 분석 방법이 한자어 대조분석에서도 유용함을 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해 보이도록 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요약 및 남은 과제에 대한 기술로 마무리를 대신한다.

2. 선행 연구: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 중심으로

그간의 한중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는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형태적으로 같거나 연관성을 보이는 한자어쌍을 대상으로 형태, 의미, 문법적 범주, 통사의 층위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한자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가리는 기준과 근거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초기에는 사전과 한자어 관련 문헌 및 연구자의 직관에 근거했다면²⁾, 최근에는 실제 언어 자료에서의 쓰임새를 살펴보기 위해 실증적 언어 자료인 말뭉치의 활용이 늘고 있다.

초기의 형태와 의미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식의 연구는 의미의 판별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전, 한중 사전, 한중 한자어 사전 등 여러 사전³⁾의 뜻풀이, 한중, 중한 사전의 대역어 정보 및 연구자의 직관에 근거해 개념의미를 대조분석했다는 점에서 일치하다. 다만, 의미의 판별 기준에 연구자의 직관이 개입함에 따라 어휘 유형별로 어휘 목록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동형동의어의 비율이 안미연(2008)은 1,250개 중 16.8%, 윤우진(2001)에서는 전체 대상어휘의 59%, 범기혜(2002)에서는 85.98%로 나타났다. 또한, 한자어 어휘의 통합관계가 한중 언어간 차이를 보이는 요소로 고려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공통점인데, 외국어로서 어휘 교육을 염두에 둔다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이런 연구 방법의 논문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문헌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면 王克全(1994), 강혜근(1995), 이미향(1999), 감서원(2002), 범기혜(2002), 배재석·윤창준(2004), 김혜순(2005), 문연희(2007), 송화연(2007), 최금단(2007, 2013), 윤운진(2008), 방향옥(2010), 김희경(2011), 두위(2012), 이상정(2012), 리우위(2014), 손해서(2014), 시아치(2016) 등이 있다.

3) 영광호 외(2006)의 “한중한자어비교사전”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뜻이 헛갈리기 쉬운 것만 뽑아 만든 사전으로, 7,500여개의 한자어 어휘들을 수록한 사전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한자어 사전의 하나이다.

이전의 형태·의미 중심의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의 흐름은 의미의 관찰에 있어 개념적 의미에서 한 발 나아가 연상적 의미에 대한 관찰도 일부 시도되었으나 관련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말뭉치가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에 도입되면서, 기존에 동형동어로 분류되는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같은 문맥에서 항상 대체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한자어쌍의 형태와 개념적 의미가 같더라도 통합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자어의 대조분석 연구는 전기를 맞는다.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에 말뭉치가 도입된 것은 일반 어휘 대조 연구보다 그 시점이 늦은 편이나, 다행스럽게도 그 덕분에 기존의 형태, 의미, 문법 범주의 관찰에서 더 나아가 한자어의 공기관계까지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언어간 등가어의 통합관계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외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문제 제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자어의 공기관계, 언어관계의 대조분석 연구로 이어지며, 심혜령(2007), 왕유가(2010), 장선우(2012)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심혜령(2006)은 “병”과 “病”의 예를 들어 한중 동형어라고 하더라도 공기관계가 다르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간섭을 일으키는 점을 환기시키며, 한국어 한자어의 공기관계를 기술하고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제시했다. 다만, 연구의 목적이 한국어 한자어의 공기관계를 명시하는데 있었기에 한자어의 공기관계 대조분석은 “병”과 “病” 등의 소수의 사례에 그쳤다. 이 연구는 근거 자료로 한국어 교육자료 말뭉치에서 추출한 한국어 원문 용례와 이에 대해 일일이 중국어 번역문⁴⁾을 달아 대응 표현을 살피는 방법으로 한중 한자어쌍의 공기관계의 차이점을 관찰하였다.

왕유가(2010)는 기존의 한자어 대조분석에서 동형동의한자어에 대한

4) 한중 병렬말뭉치가 없는 탓에 한국어 용례를 3인의 한중 이중언어화자에 의해 용례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분류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기존에 완전동형동의어로 분류된 한자어 97개를 대상으로 비교말뭉치와 병렬말뭉치 용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의미범주가 다른 어휘가 18개, 2) 발화 습관 또는 문맥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37개, 3) 언어관계가 다른 경우가 78개, 4) 조어법이 다른 경우는 86개로, 실제 쓰임에 있어 완전히 일치한 동형동의어는 없음을 검증해 보였다.

장선우(2013)는 중국어 학습용 어휘에서 한국어 한자어와 형태가 일치한 2음절어 287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결합관계를 각각 살펴보고 결합구조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하고 예방하고자 하였다. 결합구조를 관찰하기 위한 용례는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문어 국어 기초자료 말뭉치(이하 ‘세종 문어 말뭉치’로 줄임.), 베이징대 CCL 현대중국어말뭉치와 “현대한어실사결합사전(现代汉语实词结合词典)”에서 추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전적 의미에 기반한 동형동의어, 동형유의어, 동형이의어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1) 공기관계가 일치(결합어와 결합 구조), 2) 공기관계가 불일치한 경우로 나누었다. 분석 대상 어휘 중에 동형동의 한자어가 총 108개였는데 이 중에 97개가 공기관계가 일치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단일어의 어휘 연구와 언어간 어휘 대조분석에 말뭉치가 적극 활용되는 것과는 달리,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에서는 말뭉치 활용 연구가 극히 적다. 특히 말뭉치에 기반한 단일어의 어휘 연구나 언어간 어휘 대조분석에서 꽤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어휘의 공기 경향성의 관찰에 대해서는 전혀 시도된 바가 없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뭉치 활용 연구는 이전의 연구가 한자어의 통합관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뛰어넘어 일부 한중 동형동의한자어의 통합관계에서 공기어와 공기구조의 차이점을 새롭게 밝혀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한중 한자어 대조분석을 위한 말뭉치 활용 방안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에서 말뭉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말뭉치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어휘 관련 정보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는 원론적인 논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은 단어 어휘의 연구에서 시작되며, 결국은 어휘 연구의 하위 분야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말뭉치에서 추출 가능한 어휘 관련 정보를 추리고, 어휘 연구에 응용 가능한 분야를 나열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말뭉치에서 추출 가능한 어휘 관련 정보

언어 정보	응용 연구 분야	번호 ⁵⁾	
빈도	어휘의 절대빈도, 상대빈도, 누적빈도 목록	(1)	
	동형어의 어휘항목별 빈도	(2)	
	다의어의 의미항목별 빈도	(3)	
용례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맥 정보	(4)	
	공기관계(결합구조, 결합어, 결합빈도)	(5)	
	공기 경향성	의미적 선호	(6)
		연접범주	(7)
의미적 운율		(8)	
연어	연어 구성어, 연어값	(9)	

말뭉치에서 추출 가능한 언어 정보별로 한자어의 대조분석 연구에 도입할 수 있는 과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5) 기술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달았다.

3.1. 빈도 정보: <표 1>의 (1)~(3)

말뭉치는 인간의 직관으로 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언어 사실들을 제공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빈도 정보이다. 빈도는 다시 어휘 항목별 절대빈도와 상대빈도, 누적빈도를 포함한 빈도 목록까지 포함 한다. 이를 한중 한자어 대조분석에 적용하면, 다의어 한자어의 의미항목 별 빈도라든가 동형 한자어의 어휘항목별 빈도를 살펴 동형동의어 내지는 동형부분동의어의 의미적 차이를 보다 명확히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용례 정보: <표 1>의 (4)~(8)

말뭉치는 어휘 항목별로 일반 언중에 의해 실제 사용된 문맥을 제공하며, 어휘 통합관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은 공기관계, 언어관계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용례에 기반한 통합 연구는 결합구조와 결합어를 나열해 보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용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어휘 연구에서 어휘의 공기 경향성에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의 표에서 (6)~(8)에 해당된다.

3.3. 연어 정보: <표 1>의 (9)

여기서의 연어는 단순히 용례에서 관찰되는 결합구조와 결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기법을 적용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연어 구성어를 밝히고 연어 구성어별로 연어값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연어 후보를 추출

하고 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언어성이 높은 언어 구성어 목록을 자동으로 가려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 중 두 언어 모두 이용 가능한 말뭉치 활용 도구가 필요하거나 엑셀을 사용하는 등의 복잡한 연산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 어휘 대조분석 분야에서도 적용이 된 사례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 말뭉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어휘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에 활용 가능한 방법을 논의했다. 게다가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에 말뭉치를 활용한 시도가 적기 때문에 말뭉치의 활용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용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공기 경향성 연구나 언어값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1>에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한자어의 대조분석 연구에서 연구 기반 자료인 말뭉치의 구성에서 변화를 피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중 한자어쌍 중에는 “위대하다”와 “伟大”처럼 사전적 의미가 일치하지만 사용역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위대하다’와 ‘伟大’는 문어에서는 그 쓰임이 거의 일치하지만, 구어에서는 ‘대단하다’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청자에게 ‘너 (능력 등이) 참 대단해.’라고 칭찬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너는 참 위대해.’라고 하는 잘못된 쓰임을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 한자어쌍이 구어에서는 배열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기존의 문어 말뭉치뿐만 아니라 구어 말뭉치를 비교말뭉치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4. 한중 한자어의 공기 경향성 대조분석

본 연구에서 한자어 대조분석에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한자어의 공기 경향성 중에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은 Louw(1993)에 의해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특정 형태가 함께 빈번하게 나타나는 언어에 의해 형

성되는 감정적인 의미로, 특정 형태(대상어, node)와 연어(collocates)관계 전체에서 걸쳐 나타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남길임, 2012)”를 뜻한다. 한국 내에서는 한영균(2000), 김혜영·강범모(2010), 최준(2011) 등에서 주로 한국어 유의어 쌍의 의미 변별과 관련해 논의되었다. 남길임(2012)에 이르러 의미적 운율의 관찰 대상 단위가 어휘 단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 단위, 접사-어근 단위의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의미적 운율의 기술이 단지 어휘적 층위에서뿐만이 아니라 문법적 층위, 화용적 층위에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임을 말뭉치의 증거를 통해 논의하였다.

대조분석 분야에서 의미적 운율에 대한 관찰은 영어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어와의 대조분석(Tognini-Bonelli, 2001), 중국어와의 대조분석(Xiao & McEnery, 2006), 포르투갈어와의 대조분석(Sardinha, 2000)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대조분석 대상은 소수의 동사나 정도부사 등가어쌍에 머물렀으나, 언어간 어휘 대응쌍의 차이를 밝히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위에서 간략히 기술한 것처럼 어휘의 공기 경향성은 같은 어원의 동형어를 밝히는 데 활용된 적은 없으나 대조분석의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서로 등가어로 분류되는 한자어쌍을 대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은 아주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Sinclair(1996), Stubbs(2009)는 모든 의미 단위는 의미적 경향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근거하면 한자어도 의미 단위로서 의미적 경향성을 가진다는 가설이 성립되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자어가 의미와 쓰임새가 이질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공기 경향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이를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도 통합관계의 연구에 있어 결합구조와 공기어의 단순 나열이 아닌, 공기 경향성에 대한 관찰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남길임(2012)은 어휘의 공기 경향성에 관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용어

를 정리하면서⁶⁾ 용례 분석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어휘의 공기 경향성을 광의적인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로 보고, 그 하위의 개념으로 의미적 선호(semantic preference), 연접범주(colligation), 협의적인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로 나누어 보았다. 본 연구는 1 개념 1 용어의 원칙에 따라 광의적인 의미적 운율을 ‘어휘의 공기 경향성’으로, 협의적인 의미적 운율을 ‘의미적 운율’로 이르는 것을 제안하면서, 세 용어에 대해 최준(2011)과 남길임(2012)을 참조하여 조금씩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1) 의미적 선호: 특정 어휘와 빈번하게 공기하는 어휘(연어 구성어 또는 공기어, collocate)의 의미 부류
- 2) 연접범주: 특정 어휘와 관습적으로 공기하는 문법범주(부정, 시제, 상 등)
- 3) 의미적 운율: 특정 어휘가 연어 구성어(또는 공기어)와 결합하여 함께 형성하는 감정적 의미, 긍정적,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

동사 “치르다”의 예를 들면, “치르다”는 ‘시험’, ‘입시’, ‘고사’, ‘본고사’ 등의 시험과 관련된 의미와 자주 결합하며, 따라서 시험과 관련된 의미적 선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치르다”는 개념적 의미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곤욕’, ‘난리’, ‘옥고’ 등의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어휘들과 결합하여 부정적 의미 운율을 형성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최준, 2011). 한편, “까딱”, “까딱하다”는 “까딱도 안하다/않다/못하다”, “까딱할 힘이 없다”처럼 “안”, “못”, “없다” 등의 부정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와 자주 결합하여 부정적 연접범주를 이룬다.

6) 남길임(2012)에서는 Sinclair(1990, 1996), Stubbs(1995, 2009), Louw(1993), Hunston&Francis(2000) 등의 “의미적 운율”에 관한 앞선 논의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거나 앞선 연구들에서 완전 동형동의어에 통합관계까지 일치한 것으로 분류된 한자어쌍을 대상으로 말뭉치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어휘의 공기 경향성의 차이를 대조분석해 보고자 한다.

용례의 추출은 세종 문어 말뭉치 중 약 1,000만 어절의 형태소분석 말뭉치와 베이징어언대 현대중국어 말뭉치(BCC)⁷⁾의 종합 하위말뭉치 30억 자 중에 신문기사, 문학, 블로그, 과학기술 등 장르를 선택하여 비교말뭉치로 이용한다. 비교말뭉치의 두 하위 말뭉치를 이루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말뭉치가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BCC에서 추출한 용례는 무작위 추출의 방식으로 용례의 수를 한국어의 용례와 비슷한 규모로 맞춰서 임의로 추출하여 분석하고 대조한다.

추출한 용례는 MS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하며, 필요에 따라 칼럼을 추가하여 해당 어휘의 의미적 선호, 연결범주 및 의미적 운용에 대해 주석한 후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의 <표 2>는 한자어 ‘절대’의 연결범주 분석을 위한 가공 양식이다.

7) 베이징어언대의 빅데이터와언어연구소(北京语言大学大数据和语言研究所)에서 개발하여 2014년에 공개한 현대중국어 말뭉치로, 종합 유형, 문학, 신문기사, 블로그, 과학기술, 고대중국어 등의 하위 말뭉치를 가진 100억자 규모의 초대형 중국어 말뭉치로 형태소분석과 구문분석이 되어 있으며, 하위말뭉치별로 다시 매체와 장르를 선별해 용례 추출이 가능하며, 문자열 검색과 문법 요소 검색이 가능한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 주소는 <http://bcc.blcu.edu.cn> 이다.

<표 2> ‘절대’ 연접범주 분석을 위한 용례 가공 양식

ID	이전 문맥	중심어	공기어	문법범주	이후 문맥
1	‘꽃을 든 남자’ 아니 ‘반지의 제왕’ 안정환은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잘 생겼습니다(그렇다고	절대	말다	부정	‘오해’하지는 마세요.
2	내 게으르고 영악한 계산 때문이지	절대	아니다	부정	<엄마의 바다> 식의 엄마 와 같은 무능 때문은 아니 라고 자부한다.
3	우리들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않다	부정	金龍煥 씨를 의심하지 않 습니다.』
4	그곳을 들여다보면 당장 뜯어내고 싫어지든지 아니면	절대	않다	부정	가까이 하려 들지 않을 것 이다.
5	“너는 우리의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우리 결혼은	절대	가능하다	긍정	가능한 거야.

<표 2>에서 ‘공기어’ 칼럼에는 부사 ‘절대’가 수식하는 용언을 적고, ‘문법범주’ 칼럼을 추가하여 ‘절대’와 공기하는 문법범주가 긍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부정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주석한 것이다.

4.1. 의미적 선호의 대조분석: “이후”와 “以后”

“이후”와 “以后”는 여러 앞선 연구에서 완전동형동의어로 분류된 한자어쌍이다. 왕유가(2010)는 대조분석 대상 어휘 각각에 대해 많은 용례를 검토하여 언어관계를 밝히고, 연구 결과로 결합구조별 공기어 목록을 일일이 보이는 방법으로 대조분석을 하면서, “이후”와 “以后”의 언어 관계 중에 “명사+n”의 결합 구조의 언어관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왕유가(2010)의 한자어 “이후”와 “以后”의 연어관계⁸⁾

언어	유형	연어관계
한	명+n	13 세기, 1930년대 후반기, 1월 15일, 2차 대전, 3공화국 출범, 3당 합당, 3일, 4월, 53년 설립, 5공 청산, 5공, 6.29, 6.29선언, 6월, 70년대, 79년, 8.15광복, 80년대, 87년 6.29선언, 88년 11월 23일 전씨의 ‘입산’, 88올림픽, 89년 1월1일, 91년, ‘소프트니크 쇼크’, 개혁정책, 고르바초프 등장, 광주민주화운동, 광주사태, 국교정상화, 군사정권, 그날, 내년 중반, 내년, 내달, 냉전, 대통령의 사망, 대한민국정부시립, 동구 사태, 문제가 되고 있는 3세, 민비시해, 민자당 창당, 방일, 북한 방문, 분단, 서울올림픽, 수교 1월15일, 수습책제시, 여야 총재 회담, 연체사실통보, 올림픽, 이 시간, 이란-이라크전, 임시국회 파국, 전쟁발발, 지난 52년, 지난 60년 중반, 지난 86년, 지난해 11월, 지난해 중평연기, 지난해, 찬안문사태, 창산정곡, 철수, 첫 번째 방소, 청산, 체르빌사고, 총선, 총선거, 통독, 투보협정, 페레스트로이카, 페르시아만사태, 표결, 합당, 해방, 홍콩반환, 회사설립
중	명+n	五年、十一、解放、革命、一年、多年、两天、一月、十一月、二十五日、六月一日、1939年、1964年、1969年、10月、几年、退休、大战、1955年、60年代、自1987年、1927年、一万二千年、黄昏、秋分、西落、本世纪30年代、春分、独立、1949年、汉武帝、3个月、汉朝、中午12时、数年、5万年、中年期

<표 3>은 대량 예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말뭉치에서 발견된 모든 공기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이고 있는데, 분명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측면과 대조분석의 측면에서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우선, 공기어로 제시된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그대로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이다. “이후”의 의미적 특성상 “명사+n” 구조에 제시된 명사가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이 많아서, 공기어 목록을 있는 그대로 제시할 경우 학습자의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모국어 화자의 수준에 맞먹지 않고서는 학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공기어의 구체적 나열은 언어간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자료

8) 왕유가(2010:56)에서 인용.

로서 필요하지만, 목록만으로 차이를 명시적으로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대조분석 결과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기어 목록을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공기어를 의미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특정 시점(13세기, 1930년대 후반기, 1월 15일…), 역사, 정치 사건(2차 대전, 3공화국 출범, 3당 합당…)의 두 가지 유형으로 귀납된다. 다시 말해, “이후”는 “명사+n” 구조에서 “주로 특정 시점이나 역사, 정치 사건”의 의미적 선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와 대비해 중국어의 “以后”는 특정 시점이나 사건 외에도 “一年(1년), 多年(여러 해), 两天(이틀)” 등의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말들과도 공기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처럼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자어 “이후”와 “以后”의 공기어를 의미적 부류로 나누고 대조분석함으로써, 두 동형동의 한자어가 “명사+n” 결합 구조에서는 의미적 선호의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비로소 가능해진다⁹⁾.

4.2. 연접범주의 대조분석: “절대”와 “绝对”

“절대”와 “绝对”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전 기술을 보면 품사의 차이는 있지만, 한중사전과 중한사전에서 이 두 한자어의 모든 동형어와 의미항목에 서로 대역어로 제시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동형동의한자어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절대”는 명사와 부사의 품사통용어인데, 여기서는 부사적 쓰임만 살펴보기로 한다. 부사의 의미는 “연세현대한국어사전”에서 “어김없이 무조건, 반드시, 꼭”의 의미와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써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의 두 개의 의미항목을 가진다. 즉 의미항목 1은 긍정을 나타내는 연접범주에 사용되며, 의미항목 2는 부정을 나타

9) 왕유가(2010)에서는 해당 결합구조에서 언어 관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는 말과 연접범주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두 한자어의 용례를 연접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4> 한자어 “절대”의 용례 양식

ID	이전 문맥	중심어	이후 문맥
1	‘꽃을 든 남자’ 아니 ‘반지의 제왕’ 안정환은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잘 생겼습니다(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지는 마세요).
2	내 게으르고 영악한 계산 때문이지	절대	<엄마의 바다> 식의 엄마와 같은 무능 때문은 아니라고 자부한다.
3	우리들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金龍煥 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4	그곳을 들여다보면 당장 뜯어내고 싫어지든지 아니면	절대	가까이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5	“너는 우리의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우리 결혼은	절대	가능한 거야.
6	한가지 주의해야 할 일은 가고 싶지 않은 곳,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는 것.
7	이것들은 ...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정저해 요인들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8	자는	절대	간첩이 아입니더!”
9	다시 말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10	지식인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참여가	절대	확대되어야 하는 문제로 초점을 맞 춰야 할 것이다.

<표 4>는 한자어 “절대”의 용례를 일부만 보인 것이지만, 부사로서 용례 1~8에서처럼 뒤의 문맥에 “안, 아니다, 못, 못하다, 말다, 없다” 등의 부정 문법 범주와 공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밖에, 의미항목의 1과 관련된 용례로는 용례 9, 10처럼 당위성을 나타내는 구문과 연접범주를

형성하는 예가 관찰되었다.

<표 5> 중국어 “绝对”의 용례 양식

ID	이전 문맥	중심어	이후 문맥
1	全起来领导是我们的灵魂，是我们的领头人，	<i>绝对</i>	要保证安全。看到领导们的座驾，就知道什么“
2	我也帮个忙！	<i>绝对</i>	支持，大家转起来！
3	未来。1、索取者也许能吃得更 好，但给予者	<i>绝对</i>	能睡得更香。2、生命于混沌里产生，习惯在条
4	如果你拥有其中任何一款，那你	<i>绝对</i>	会成为全场的焦点，光芒四射！
5	二胖鞋快来围观，你	<i>绝对</i>	没有看到的私房照片。
6	产品质量，尤其是食品质量， 事关百姓生死，	<i>绝对</i>	不能护短。用6年写了3篇稿子，也算一个交待
7	我不忍心再让生活摧残自己。	<i>绝对</i>	不能让自卑占满心怀。眼前一片浓雾。这年头，
8	够嫩我在徐浦大桥。哈哈…手 直播么哈哈玩你	<i>绝对</i>	你是个高手，。。这速度也忒。。 。:嘿嘿，一
9	这个	<i>绝对</i>	不是国产的！
10	疾人士先行，是民主文明社会的人 性体现，但，	<i>绝对</i>	不是判断是否汉奸的标准，更不是 专制拿来显摆

중국어 “绝对”는 부정을 나타내는 연접범주(<표 5>의 용례 6, 7, 9, 10) 외에도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용례 1),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문과(용례 3, 4) 연접범주를 이루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한자어의 부정적인 연접범주의 비율과 당위성을 나타내는 연접범주의 비율을 표로 비교해 보이면 <표 5>와 같다.

<표 6> “절대”와 “绝对”의 연접범주 대조표

연접범주	“절대”		“绝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부정	373	85.7%	140	29.5%
당위	9	2.1%	11	2.3%
추측	0	0.0%	13	2.7%
가능	0	0.0%	10	2.1%
기타 ¹⁰⁾	62	14.3%	302	63.6%
합계	435	100.0%	476	100.0%

요약하면, 사전적 의미가 일치한 동형동의 한자어쌍인 “절대”와 “绝对”는 용례를 분석한 결과, 연접범주를 형성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절대”는 85.7%가 부정 연접범주를 이루는 데 반해 “绝对”는 부정 연접범주 형성은 29.5%에 불과하고 한국어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양태구문과도 연접범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정 연접범주를 형성할 때 또 다른 점으로, “절대”는 부정을 나타내는 어휘 “안, 못, 아니다, 못하다, 말다…” 등과의 결합거리(span)가 멀게는 6~7어절인 경우가 흔하고 평균적으로 3, 4어절 이상인 반면에, “绝对”는 결합거리가 평균 1어절 정도인 것도 특기할 만하다.

4.3. 의미적 운용의 대조분석: “돌연”과 “突然”

“현대한어사전(现代汉语词典)”에 따르면 “突然”은 형용사와 부사의 두 가지 품사에 속하며 뜻풀이를 봤을 때 한국어의 “돌연”과 사전적 의미가 같고, 공기관계도 일치한 목록으로 분류된 바 있다¹¹⁾.

‘돌연’은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급히.”로 풀

10) 기타 유형은 연접범주로 설명되지 않는 유형의 예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의미적 선호, 의미적 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장선우(2013: 177)를 참조.

이되며, 중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 문어 말뭉치에서 “돌연”은 파생어인 “돌연히”, “돌연하다”의 용례까지 합쳐 139개의 용례가 추출되었다. 이 중에 부정적 의미 운율을 이루는 용례가 62%, 중성적인 의미 운율을 이루는 용례가 34%, 긍정적 의미 운율을 이루는 용례는 4%를 차지했다.

<표 7> “돌연” 계열 어휘의 용례 양식

ID	이전 문맥	중심어	이후 문맥
1	그의 얼굴에서	돌연	미소가 사라졌다.
2	저러다가	돌연	미친개처럼 물어뜯을지.
3	그런 내 새끼 중의 하나가 봄의 절정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이 세상에서	돌연	사라졌다.
4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이	돌연	폐지된다.
5	너석들은 주명이의	돌연한	행동에 잠시 주춤했다.
6	그가 ... 수하러 온다고 와놓고는	돌연히	사권 이 여자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양은 어디로 달아나고 말았다.
7	어느 민족의 처지에서든 문화가	돌연	발생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8	놀란 뱃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돌연	뱃머리에 스님 한 분이 나타나 말하였다.
9	70년대에는 별다른 고고학 연구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 80년대에 발해 유적들을 확인하면서	돌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0	전화를 끊자 어두컴컴한 실내에 불이 켜지듯 눈 앞이	돌연	환해졌다.

<표 7>의 용례 1을 보면 “돌연”은 ‘미소가 사라지다’를 용례 2는 “미친 개처럼 물어뜯다”는 사건을 수식하고 있다. 용례 3~6도 마찬가지로, 모두 “돌연”의 중성적인 사전적 정의와는 별개로 “돌연” 나타난 사건이나 상황, 또는 그로 인한 결과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부정적 의미 운율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용례 7, 8에서 “돌연”이 “말하다”, “(문화가)

발생하다”와 결합하여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중성적인 의미 운율을 이루는 것과는 대비된다. 용례 9, 10은 아주 드문 경우로, “돌연”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다”와 “환해지다”와 결합하여 해당 문장들이 기술하는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는 용례이며, 긍정적인 의미 운율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한편, 중국어 “突然”의 용례를 살펴보면, “(突然)돌연” 나타난 대상이 “幸福(행복)”인 경우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표 8>의 용례 1~6), 이는 한국어에서의 쓰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었다.

<표 8> 중국어 “突然”의 용례 양식

ID	이전 문맥	중심어	이후 문맥
1	幸福来得有点	突然	!!!早日见到郑允浩在我心里你永远都是第一
2	...今天妈妈来北京啦, 幸福来得好	突然	。只想要简单的小幸福~ 别无。
3	...没白耗到这时候.幸福来得有点	突然	,并且那真的是百分之百的越位...啧啧
4	。你眼中的90后是什么样?一起来点评吧!	突然	感到好幸福...
5	爸幸福来的太突然也走得大	突然	,我也担心起来了我觉得农村来的孩子回到农村
6	...幸福总是来得那么	突然	,我期待的日子又来临了...
7	当时村民们正在吃午饭,	突然	“轰”的一声巨响,震得整个山村地动山摇...
8	“公公,我扶你过马路。”	突然	一双小小的手拉住了他。
9	这是什么时候的发型?!帅!眼睛	突然	一发光,还是明显的能看出大姐清秀跟美丽的脸...
10	要先吃早餐,然后抽管烟。”此时,他的脸色	突然	一变。”不,不抽烟了!我想我以后都不抽烟了。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일반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30억자의 BBC에서 “幸福”와 “突然”이 같은 문장에서 출현한 용례를 검색한 결과 “행복”이 “돌연” 찾아오는 용례가 1,500여 개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BBC의 규모에 맞먹는 한국어 말뭉치가 없는 탓에 한국어 포털 사이트 구글과 네이버에서 “행복”과 “돌연”을 결합 검색어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한 문장에서 공기한 예가 5개 미만이었다. 즉 한국어에서는 세종 문어 말뭉치를 토대로 분석한 것처럼 “돌연”이 긍정적인 의미 운율을 형성하는 비율이 4%이며, “행복”과 “돌연”은 더더욱 일반적인 공기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자어 “돌연” 계열 어휘 “돌연, 돌연히, 돌연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나 구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의미 운율을 주로 형성하며 긍정적 의미 운율을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반해, 중국어 “突然”은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중성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와 다양하게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 운율의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중국어 “突然”은 한국어의 “행복”과는 달리 “幸福(행복)”과 자주 어울려서 긍정적인 의미 운율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둘은 큰 차이를 보였다.

5. 나오는 말

이 연구는 그간의 한중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를 검토하여 객관적 언어 자료보다 직관과 사전 등의 앞선 문헌에 많이 기대고 있는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뭉치에 기반한 한자어의 공기 경향성, 즉 의미적 선호, 연접범주, 의미적 운율의 관찰과 대조분석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말뭉치에 기반한 앞선 한중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를 살펴보고, 매우 미비한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장에서는 말뭉치에 기반해 추출 가능한 어휘 관련 정보들을 나열하면서 한자어 대조분석에서의 말뭉치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4장에서는 한자어

의 공기 경향성의 차이를 관찰하여 대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법론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완전동형동의어의 한자어쌍으로 분류되어 온 “이후”와 “以后”, “절대”와 “绝对”, “돌연”과 “突然”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어휘의 공기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각각 의미적 선호, 연결 범주, 의미적 운용에서 차이를 보임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한중 한자어의 대조분석에 적용 가능한 말뭉치의 다양한 활용 방안과 더불어 어휘의 공기 경향성을 관찰할 것을 제안하고 그 효용성을 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해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방법론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베트남어 등의 다른 한자 문화권 언어와의 한자어 대조분석 연구에도 방법론적인 참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 중 두 언어의 한자어가 통시적으로 뿌리는 같으나 서로 다른 언어문화 안에서 발전하면서 형태나 의미뿐만 아니라, 의미적 선호, 연결 범주, 의미적 운용에서도 달라진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것도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라 하겠다.

지금까지 한중 한자어 중 완전동형동의어 목록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고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규모가 큰 편이다. 보다 많은 구체적인 한중 한자어쌍에 대해 말뭉치에 기반하여 어휘의 공기적 경향성을 관찰하고 대조분석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강혜근(1995). 韓·中 共用 漢字語 중의 異義語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14집, 중국인문학회, 47~88쪽.
- 김순길(2014). 기초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방안, <한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문학회, 303~328쪽.
- 김진아(2005).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를 통한 중국어 어휘 습득이 중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통번역연구소 논문집> 제9집, 통번역연구소, 22~36쪽.

- 金慧順(2005). <中·韓·日 漢字語 比較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하승완(2012). 강조를 위한 부사 사용에 대한 비교 분석: 현대 한·중 코퍼스를 대상으로, <언어와 언어학> 제5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27-144쪽.
- 김희경(2011). 한자어의 유형 분류 재고-한중일 한자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 제5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53-74쪽.
- 남길입(2012). 어휘의 공기 경향성과 의미적 운율, <한글> 제298호(2012. 겨울). 한글학회, 135-164.
- 두위(2012). <한국어 한자어 합성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리우위(2014). <韓·中漢字語의 派生法에 관한 比較研究-接頭派生語와 接尾派生語의 漢字接辭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연희(2007). <韓·中 漢字語 意味 對比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향옥(2010).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재석, 윤창준(2004).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의 어의, 형태론적 비교연구 -초급 중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자어의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25권, 이중언어학회, 93~112쪽.
- 범기혜(2002). <韓中 同形 漢字 語彙에 대한 比較 考察>,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해서(2014).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 대비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화연(2007). 韓·中 한자어의 의미·형태·용법 대조, <중국언어연구> 제24집, 한국중국언어학회, 513-534쪽.
- 안미연(2008). <한국한자어와 현대한어 상용한자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애(2008). 中國人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韓國 漢字와 漢字語 教育의 기초 연구, <새국어교육> 제7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55-279쪽.
- 시아치(2016). <한·중 서술성 명사의 대조 연구 : 동일 한자어를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혜련(2007). <한국어 교육용 기초 한자어 명사의 공기 관계 연구: 한중 대조 연구를 예시로 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성아(2015).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방안 연구 : 충북대학교 교재 『매일 만나는 한국어 1』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제35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1~225쪽.
- 오성애(2008). 中國人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韓國 漢字와 漢字語 教育의 기초 연구, <새국어교육> 제7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55-279쪽.

- 王克全(1994). <한·중 한자어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유가(2010). <코퍼스 기반 한·중 절대동형동의 한자어의 연어관계와 대역양상 대조 연구: 97개 한자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우진(2001). <韓·中 實用 漢字 語彙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운진(2008).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자어 어휘교육을 강화할 필요성과 그 대안,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7~193쪽.
- 이미향(1999). 한·중·일 어휘 비교를 통한 한국 한자어의 특성 고찰, <언어과학연구> 제16권, 언어과학회, 403~425쪽.
- 이상정(2012). <한·중 한자어의 의미 및 번역에 대한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선우(2013). 한중 동형(同形) 한자어의 공기(共起) 관계 비교, <한자한문교육> 32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65~194쪽.
- 최금단(2007). 현용 한국 동사 한자어와 이에 AB:AB:AB型으로 대응되는 현대 中日 同形同素語의 部分 異義에 대한 고찰 : [명사성 어근+동사성 어미(-하다)]유형의 현용 초등학교 교육용 한자어를 대상으로, <국어학> 제49호, 국어학회, 355~384쪽.
- 최금단(2013). 新HSK와 初級用 TOPIK 어휘 중의 中韓 同形 同素 漢字 어휘의 비교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30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87~222쪽.
- 최준(2011). 경험 동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한국사전학> 18호, 한국사전학회, 211~228쪽.
- 황은하(2009). 한·중 대조분석 연구 동향, <2009' 이중언어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집>, 이중언어학회.
- 程崇義(1987). 한·중 한자어의 변천에 관한 비교연구>, <국어연구> 第80號.
- 甘瑞瑗(2002). <韩汉字词河中汉语词在意义与形式之间的对比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慧順(2005). <中·韓·日 漢字語 比較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晓红, 卫乃兴(2012). 《双语视角下词语内涵义与语义韵探究》, 现代外语 2012年01期.
- Changhu Zhang(2010). An Overview of Corpus-based Studies of Semantic Prosody, in Asian Social Science, 6/6: 190-194.
- Ebeling, S. O.(2013). Semantic prosody i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in Studies, in Variation, Contacts and Change in English, volume 13, <http://www.helsinki.fi/varieng/journal/volumes/13/ebeling>
-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ubbs, M. (2009). "The Search for Units of Meaning: Sinclair on Empirical Semantics"

in Applied Linguistics, 30/1: 115-137.

Xiao, Z. & McEnery, A. (2006). "Near synonymy, collocation and semantic prosody: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in Applied Linguistics, 27/1: 103-109.

<말뭉치>

국립국어원(2011).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문어 국어기초자료 말뭉치

北京语言大学大数据与语言教育研究所(2014). BCC(BLCU Chinese Corpus)语料库
(<http://bcc.blcu.edu.cn/>)

<사전>

现代汉语词典, <http://cidian.911cha.com/>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연세현대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dic/>

네이버중국어사전, <http://cndic.naver.com/>

다음중국어사전, <http://cndic.daum.net/>

황은하(Huang Yinxia)

배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35345 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50(도마동)

전화번호: 042-520-5438

전자우편: behisson@gmail.com

접수일자: 2016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9월 13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19일